

韓英語의 主語와 主題

康 壽 彦

〈目 次〉

- | | |
|--------------------|--------------------|
| 1. 序 言 | 3. 「場所理論」과 主語化·主題化 |
| 2. 「主語」와 文構造의 「記述」 | 4. 結 言 |

I. 序 言

언어란, 원래 混質的·複合的·多面的인 것이다. 따라서 言語類型論에서 말하는 主語型言語 (Subject-Prominent Language)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行爲者:行爲〉의 構文만 존재할 뿐, 〈主題:解說〉의 구조는 全無한다던지,¹⁾ 主題型言語 (Topic-Prominent Language)에는 「主語」라는 文法範疇은 완전히 洩消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조금한 일이다.²⁾ 그보다는 主語

※ 本稿는 故康壽彦 教授의 遺稿임.

1) 英語에 있어서도, Ross, Reinhart, Leech 등은 각각 다음과 같은 主題化의 例文을 들고 있다.

- i) *This book*, I really like. — J.R. Ross,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iss., MIT., 1967), p. 207.
- ii) (As for) *Sonya*, she denies that Hirschel admires her. — Tonya Reinhart,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Diss., MIT., 1976), p. 39.
- iii) (As for) *Rosa*, my next book I will dedicate to her. — *Ibid.*
- iv) *Excellent food* they serve here — Leech and Svartvik,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1975), § 425.

2) 한국어의 경우, 成光秀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누가 공부를 하느냐? (a') 철수가 공부를 한다.

(b) 철수는 무엇을 하느냐? (b') 철수는 공부를 한다.

위의 例에서 「누가, 철수가, 철수는」은 각각 문장 내 主語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b. b'의 「철수는」은 主語 職能外에 主題語의 구실을 하고 있다) cf. 成光秀 (1974) “國語主語 및 目的語의 重出現象에 대하여” 문법연구 1집, pp. 216 ~ 217.

型言語에서는 〈主:述〉構造型이 〈主題:解說〉보다 두드러지고, 主題型言語에서는, 이와 반대로 〈主題:解說〉이 돋보인다고 해석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그權威가 確立된 英文法書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에서도, 영어의 主語를 “既知項:新知項”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음이 注目된다. 곧

(1)

The subject of the sentence has a close general relation to 'what is being discussed', the 'theme' of the sentence, with the normal implication that something new (the predicate) is being said about a 'subject' tha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an earlier sentence. — R. Quirk *et al.*³⁾

이러한 說明의 裏面에는, 著者들이 文을 統辭面에서는 〈主語와 述語〉로, 機能面에서는 〈主題와 解說〉로 分析할 필요가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한편, “코끼리는 코가 길다” 또는 “나는 냉면이다”라는 表現形式은 主題型言語의 特色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형식도 主語型言語인 영어에 全然 없는 것은 아니다. M. Boulton의 *The Anatomy of Language*는 다음과 같은 發話を 기록하고 있다.

- (2) a. I'm a rissole. (나는 고기 만두이다.)
 b. We're all tarts.⁴⁾ (우리들은 모두 과일 파이이다.)

물론, 이런 例文은 매우 드물겠지만, 어쨌든, 自然現象을 표현하는 데까지 代役主語 (dummy subject)⁵⁾를 쓰는 英語에, 이러한 現象이 일어난다는 것은 言語의 混質性을 우리에게 痛感시킨다.

Li & Thompson (1976)은 그들의 言語類型論⁶⁾에서, 영어는 『主語型言語』로, 중국어는 『主題型言語』로, 한국어는 『主語型 및 主題型言語』로 규정하고 있다.⁶⁾ 그러나, 한국어가

3) Randolph Quirk,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 Jan Svartvik,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1972) p. 34

4) “tart”에는 「과일이 든 pie」라는 뜻 외에 「賣春婦」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창피를 보는 例로 引用되어 있다.

5) 이러한 代役主語 (보기: it) 때문에, 英語는 “가장 典型的인 主語型言語”라고 일컬어진다. 같은 主語型言語이지만 라틴어, 핀란드어에는 ‘it’에 對應하는 것이 없다. cf. LATIN: “pluit” (=비가 온다), FINNISH: “Tuulee Kovasti” (=바람이 몹시 분다)

6)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 “Subject &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p. 460

「主語型」 언어의 特性和 「主題型」 언어의 特성을 同等한 정도로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비록, 現象的으로는 時代와 더불어 한국어도 主語型 特性이 점차 增大하는 方向으로 發達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根本的으로는 主題型 特性이 濃厚한 언어라 하겠다. 아 물론, 이러한 “言語의 複合的 混質性” 때문에, 한국어의 「主語·主題」 問題의 해명을 위한 국어학자 들의 努力도 7) 아직은 統一된 見解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⁸⁾ 이를테면, 申昌淳교수

Li & Thompson의 分類는 다음과 같다.

- i) 主語型言語: 인도·유럽 (Indo-European) 語族, 나제르·콩고 (Niger-Congo) 語族, 핀란드·우랄 (Finno-Ugric) 語族, 인도네시아어 (Indonesian), 마라카시어 (Maragasy)
 - ii) 主題型 言語: 中國語, 티벳·버마어 (Lolo-Burmese)
 - iii) 主語型 및 主題型言語: 日本語, 韓國語
 - iv) 非主語型·非主題型言語: 타갈로그어 (Tagalog), 이로카노어 (Ilocano)
- 이 논문에 직접 引用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勞作들이 있다.
- 7) 유목상 (1967) “主格連鎖型的 文章에 대한 考究” 중대논문집, 16
 송석중 (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고영근 (1968) “主格助詞의 한 種類에 대하여” 이승녕박사 송수기념 논문
 남기심 (1968) “그림씨를 풀이말로 하는 문장의 몇가지 특질” 한글, 142
 이승녕 (1969) “主格重出의 文章構造에 대하여” 어문학, 20
 박순함 (1970) “格文法에 立脚한 國語의 格主語에 대한 考察” 어학연구, 6-2
 김민수 (1970) “國語의 格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서정수 (1971) “國語의 二重主語 問題” 국어국문학, 52
 박양규 (1971) “國語의 處格에 대한 研究” 국어연구, 27
 임홍빈 (1972) “國語의 主題化 研究” 국어연구, 28
 양인석 (1972) “Korean Syntax”,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이홍빈 (1974) “主格 重出論을 찾아서” 문법연구, 1
 이정민 (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 D. diss. (Indiana Univ.)
 이정로 (1974) “Topics in Korean Syntax with notes to Japanese”, Ph. D. diss. Yonsei Univ.
 양동휘 (1975) “Topicalization and Relativization in Korean”, Ph. D. diss. (Indiana Univ.)
 박양규 (1975) “所有와 所在” 국어학, 3
 채 완 (1976) “助詞 ‘는’ 의 意味” 국어학, 4
 채 완 (1977) “現代國語 特殊助詞의 研究” 국어연구, 39
 이익섭 (1978) “被動性 形容詞文의 統辭構造” 국어학, 6
 이익섭 (1978) “한국어의 再歸代名詞에 대하여” 서울대 인문논총, 2
 채 완 (1979) “話題의 意味” 관악어문연구, 4
- 8) 서정수 교수는 이러한 見解 差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無主語問題: 이승욱, 임홍빈은 “주어는 必須要素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송석중, 이

는, 모든 문장구조를 「主題」, 「主格補語」, 「敘述語」 및 「說明語」로 표시함으로써,⁹⁾ 한국어는 순전한 主題型言語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李承旭교수는 “주어는 敘述에 관계하는 附屬的인 構成素이며, “主語省略文·無主語文이라는 範疇設定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 그러나, 朴良圭교수는 이와 대조적으로 「主語의 “省略”」과 「二重“主語”文」을 인정함으로써 「主語」라는 문법범주가 존재한다고¹¹⁾ 판단하고 있다.

이 연구는 韓英語의 主語·主題를 對照·比較하는 것이 그 目的이다. 따라서, 「主語」가 한국어에 전연 없다면 對照·比較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比較對象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한국어에 「主語」의 존재를 認定 내지 假定하는 것이 언어구조 記述의 一般化 (generalization)와 規則性 (regularity)을 보다 合理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論文에서는, 첫째 한국어의 「主語」問題を 다루고, 그 다음 한·영어의 「主語化·主題化」의 類型的 差異를 “場所理論 (Localist Hypothesis)”¹²⁾의 觀點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主語」와 文構造의 「記述」

2-1. (主語의 概念) 전통문법에서는, 主語를 “動詞가 의미하는 行動을 하거나, 그 行動을 받는 사람”¹³⁾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해보면, 主語가 갖는 의미기능은 실로 多岐多様함을 곧 알 수 있다. Quirk *et al* (1972)도 主語를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정로는 “주어는 深層的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② 二重主語 問題: 남기식은 “大主語·小主語는 擴大 變形으로 설명된다”; 송석중, 서정수는 “表面構造上的 한 現象”으로; 임홍빈, 양동휘, 신창순은 “深層的 格의 主語 또는 主題化 現象”이라고 보고 있다.

③ {~이}와 {~는}: {~이}는 NP에, {~는}은 VP에 焦點이 놓여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特定的인 대 반하여, {~는}은 非特定的, 習慣的, 一般的, 總稱的 (generic)이다.

{~이}는 指示性 또는 主語 標識性이 강하고, {~는}은 主題化性이 강하다.

cf. 서정수 『국어구문론 연구』(탑출판사, 1978), pp. 328 ~ 329.

9) 申昌淳 “國語의 「主語問題」 研究”, 문법연구 제 2집, 1975, pp. 166 ~ 167.

10) 李承旭 “主語의 統辭에 관한 考察”, 現代國語文法 研究論文選(4), (1969), p. 251.

11) 朴良圭 “主語의 省略에 대하여”, 國語學 9, 1980, pp. 23 ~ 24.

12) “場所理論”에 대해서는, 이 논문 (3-1)에서 論議함.

13) 이정민·배영남 『언어학사전』(한신문화사, 1982), p. 754.

- (3) 14) a. 動作主 主語 (agentive subject) : 動詞가 뜻하는 行動事件을 일으키는 生物體를 나타낸다. *John* opened the letter.
- b. 原因 主語 (instrumental subject) : 운동·사건을 일으키는 無意志의 물리적 原因을 나타낸다. *The avalanche* destroyed several houses.
- c. 被動 主語 (affected subject) : 운동·사건의 影響을 받는 有生·無生物. *The door* opened. (cf. John [*The key*] opened *the door*.)
- d. 受容者 主語 (recipient subject) : 동사 have, own, possess와 같이 쓰이어 受容者의 역할을 담당한다. (Mr. Smith has bought *his son* a radio. →) So now *his son* has the radio.
- e. 場所 主語 (locative subject) : 장소를 지정한다. *This path* is swarming with ants. (= Ants are swarming *all over this path*.)
- f. 때의 主語 (temporal subject) : 때를 지정한다. *Tomorrow* is my birthday. (= It is my birthday *tomorrow*.)
- g. 行事 主語 (eventive subject) : 행사·활동을 지정한다. *The concert* is on Thursday.
- h. 虛語 ' it ' 主語 (empty *it* subject) : 意味內容이 없으며, 특히 날씨에 자주 쓰인다. *It's* raining.

이러한 分類를 보더라도 「主語」를 定義하기란 결코 容易하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언어의 傳達機能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프라그學派 (Linguistic Circle of Prague) 에서는, 自然言語의 모든 文은 “어떤 사항에 관해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보고, 前者 (= “어떤 사항”)를 主題 (theme 또는 topic), 後者를 解說 (rheme) 또는 評言 (comment)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문법적인 「主語」는 이 主題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⁵⁾ 또한, 變形生成文法에서는, “主語란, 문장 S의 直接支配를 받는 NP, 곧 S → NP + VP에 NP가 갖는 문법적 기능이라고 定義하고”¹⁶⁾ 있다.

요컨대, 프라그學派나 變形生成文法派의 주장은 모두, 基本文을 <主語-敍述語>의 二枝的 bipartite 構造로 판단하고 있음에 그 共通點이 있다.

2-2. (한국어 主語의 「記述」問題) 한국어의 「主語」를 論할 때 항상 問題되는 것은

- 14) Quirk *et al* (1972), *op. cit.*, pp. 350 ~ 354.
- 15) cf. Vilém Mathesius, *A Functional Analysis of Present Day English on a General Linguistic Basis*, (ed. Josef Vachek), The Hague: Mouton, 1975.
- 16) cf. 이정민·배영남 (1982), *op. cit.*, p. 754 및 서정수 (1978) 『국어구문론 연구』 p. 251.

결국, 主語없이 發話된 文을 “主語의 省略”으로 볼 것이냐, 또는 한국어는 원래 “主語와 같은 것을 假定하지 않더라도” 記述할 수 있는 文構造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問題를 구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꼭 留意하여야 할 것은 “省略된 것”으로 보든, 또는 “원래 存在하지 않은 것”으로 보든, 根本的인 言語의 framework를 떠나서 論하는 것은 無意味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4) 먹겠습니다.

인 경우, 이 文에 주어가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主語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과연 “主語가 省略된” 결과냐, 혹은 원래 “存在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問題는 결국 한국어의 文構造의 특질을 어떻게 「記述」하느냐 하는 問題가 된다. 따라서 論點은, 주어의 存在 與否자체가 아니라, 주어의 존재를 假定하고 이 文에선 “省略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framework와, “원래 存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framework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이 보다 合理的이고 效果的으로 언어구조의 規則性(regularity)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言語的 直觀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2-3. (主語의 “省略”) “主語가 省略된 文”¹⁷⁾은, 비유해서 말한다면, 英語에 있어서 目的語가 생략된 他動詞 이른바 pseudo-intransitive verb¹⁸⁾의 경우와 흡사하다. 곧 英語의 eat는 원래 他動詞이지만, 現實적으로 “The boy eats.”라는 文이 있으면, 그 “eat”를 自動詞로 생각하는 것이 어째서 잘못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現實적으로 “主語가 없는 文”이 있으면, 그 文은 “원래 主語가 없는 文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으나 하는 論法과 비슷하다.

英語에는 원래 目的語를 가져야만 하는 動詞와 反對로 目的語를 가져서는 아니되는 動詞가 있다.

- (5) a. The boy uses bread.
b. *The boy uses.

- (6) a. The boy swims.
b. *The boy swims the ocean.

17) 李御寧 교수도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이 없는 不具者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李御寧, 韓國語 叢書①, 連載페이지 < 21 >, 1982年 11月 30日 字 朝鮮日報.

18) cf. R.B. Lees,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s* (The Hague: Mouton & Co., 1960), p. 33 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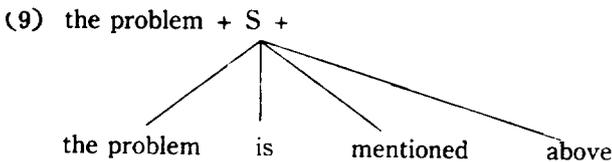
그런데 다음과 같이 두 文章이 모두 文法的일 때도 있다.

- (7) a. The boy eats bread.
- b. The boy eats.

이 경우, (7-a)의 “eat”는 他動詞이고, (7-b)는 그것만으로 獨立할 수 있는 文이므로 그 文의 “eat”는 自動詞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무엇을 먹느냐에 話者의 關心이 없을 때는, (7-b)와 같은 發話를 우리는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b)의 文은 目的語에 해당하는 것을 省略하여 “生成”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文法構造를 記述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態度 記述의 一般化 (generalization)를 志向하는 態度 와 關聯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構造가 있을 경우

- (8) a. the above-mentioned problem
- b. the problem mentioned above
- c. the problem which is mentioned above

위의 表層構造는 각각 다르지만, 그 세가지 構造의 統辭의 特性을 고찰할 때, 우리는 그 세가지가 모두 同一한 文章 “The problem is mentioned above.”에서 나온 것으로 一般化 (generalize)하는 것이다. 끝



(9)와 같은 “根底構造 (underlying structure)”를 假定하고, (8-a, b, c)는 이로부터 派生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根底構造와 派生”은 “Pseudo-intransitive verb에 관한 記述의 一般化”와 共通되는 性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主語의 省略”을 비롯한 文法構造記述의 generalization과도 밀접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이 Pseudo-intransitive verb에 관한 記述의 generalization은 동시에 그것에 關聯되는 여러가지 統辭上的 特性, 이를테면,

- (10) a. the swimming boy
- b. *the eating boy
- c. *the using boy

에 있어서, (10-a)와 같이 the swimming boy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10-b, c)는不可能하다는 文法的 성격을 合理的으로 설명해준다. 이러한 성격에는 “目的語가 存在한다”라는 徵標(mark)의 有無따위는 全然 問題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7-b)의 “eat”를 自動詞로 간주하는 見解로는, 記述의 generalization을 잃을 뿐더러, (10-a, b, c)의 文法的 事實을 合理的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言語活動에 있어서 우리는 文法을 人間의 行爲模型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¹⁹⁾ 곧, (4)의 「먹겠습니다」라는 文에, 문법적으로 省略된 主語를 假定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결코 우리가 (4)를 發話할 때 우선 主語를 갖춘 文章을 想定하고, 다음에 그 主語를 머리 속에서 省略하고, 그리고 나서 (4)와 같은 形式으로 發話하는 그러한 心理的·生理的 過程을 밟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敘述語가 主語를 前提하거나 假定하지 않고서는, 한 덩어리의 정돈된 意味를 결코 나타낼 수 없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를테면, 「먹겠습니다」의 경우, 어찌서 “누군가가…” 또는 “나는 食事を 시작하겠다.” 따위로 解釋하는 것이며; 「먹고 싶어 한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또는 “뭔가가 먹고 싶어 한다”로 解釋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먹고 싶어 하는」 主語를 무엇으로 생각할 것이냐 하는 問題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問題들은 「省略된 主語」를 假定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合理的으로 說明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따뜻하구나」라는 自然現象을 말하는 發話에도 “날씨”와 같은 主語를 假定할 수 있으며 「열에서 둘을 빼면 여덟이다」라는 “無主語文의 典型”으로 생각되는 文章에서도 “그 나머지”라는 主語를 가정할 수 있다.

2-4. (「不完全」과 「不明確」) 主語否定論에서는, “주어는 敘述에 관계하는 附屬的인 構成素에 지나지 않는다.”²⁰⁾ 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곧, 主語는 敘述語 속에 包含되며, 目的語·補語·狀況語²¹⁾와 同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꾸어 말하면,

- (11) a. 내가 준다.
b. 아우에게 준다.

와 같은 發話는, 「내가」에도 명확한 主語의 徵標가 없으며, 「내가」와 「아우에게」의 두 Prepositional Phrase (名詞+助詞)는 똑같은 地位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主張은

19) Noam Chomsky,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ass.:MIT Press, 1965), pp. 8 ~ 9.

20) cf. 李承旭 (1969), *op. cit.*, p. 251.

21) 時間이나 場所를 나타내는 副詞句(ADVt, ADVl)를 뜻한다.

兩者 사이에 있는 統辭上的 커다란 差異를 看過하고 있다. 곧, (11-a)의 「내가…」는 거의 모든 動詞 앞에 올 수 있는데 (例: 내가 먹는다. / 내가 물건을 산다. / 내가 심는다.) 反하여, 「아우에게…」는 限定된 動詞 앞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아우에게 먹는다. / *아우에게 심는다.) 이와 關聯되는 표현이지만,

- (12) a. 나는 준다.
b. 아우는 준다.

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12-a.)는 의미의 「不明確」이 없지만, (12-b.)는 i) “아우는 그것을 남에게 주어 버릴 것이다.”와 ii) “아우에게만은 주겠다”의 두가지로 解釋될 수 있다. 이와 같이 (12-a.)는 「不明確」하지 않고, (12-b.)는 「不明確」한 것은 무엇때문이나 하는 점을 —— 중요한 統辭上的 차이를 —— 主語否定論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不明確」이란 개념은, 실은 主語의 존재를 認定하거나 假定하는데 중대한 관계가 있다. 원래 言語에 의한 表現은 아무리 詳細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發話의 길이가 현실적으로는 有限하기 때문에, 언제나 「不完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 (13) 金君은 가지 않습니다.

인 경우, 이것만으로는 金君이 어디로 안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가령,

- (14) 金君은 學校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狀況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째서 안가는지 알 수 없다.

- (15) 金君은 오늘 피곤하여 學校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보다더 擴充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느 학교에 안가느냐?”라는 質問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發話는 모두 「不完全」한 것이다. 그 까닭은 우리를 둘러싸는 自然界는 無限인데, 그것을 表出하는 언어는 有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言語表現이 「不明確」하다는 것과 「不完全」하다는 것과는 根本적으로 서로 다르다.

- (16) 女性和 젊은 男性은 가지 않아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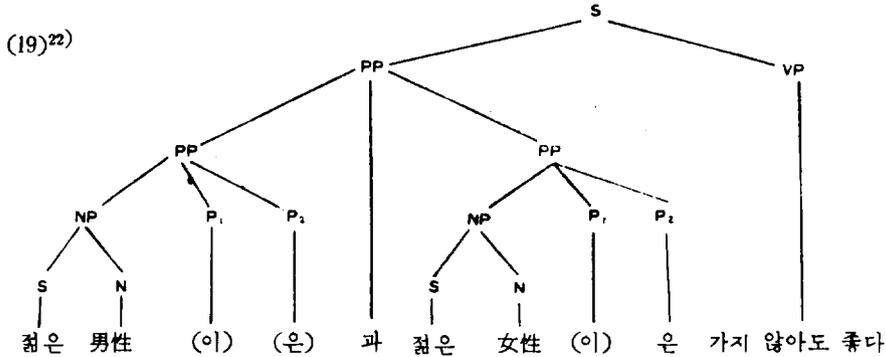
라는 文은 「不完全」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不明確」하다고는 하지 않는다. 이에 反하여, 語順만을 바꾼

- (17) 젊은 男性과 女性은 가지 않아도 좋다.

라는 文은 i) “젊은 男性과 女性은 가지 않아도 좋다.” ii) “젊은 男性과 모든 女性은 가지 않아도 좋다.” 라고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不明確」한 文章이다. 이렇게 (17) 이 두가지로 解釋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그 近底에 있는 構造 (underlying structures)가 두가지 있을 수 있었음을 뜻한다. 곧,

- (18) a. 젊은 男性과 젊은 女性은 가지 않아도 좋다.
 b. 젊은 男性과 女性은 가지 않아도 좋다.

라는 2個의 서로 다른 underlying structure 가 있었는데, (18-a.)의 경우에는 “젊은”이라는 修飾成分이 :



위 分枝圖에서 보는 것처럼, 동등한 統辭的 位置에 중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同一成分除去規則에 의하여 두번째의 『젊은』이 除去되어 (18-a.)와 (18-b.)는 “同一한 表層構造”로 변형된 것이다. 곧 각각 深層構造가 다르고, 따라서 意味도 다른 表現이 『젊은』이라는 修飾語가 省略됨으로써 表層構造가 같아지고, 결국에 가서는 “젊은 男性과 女性은...”에는 두가지로 해석되는 「不明確」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 (20) a. 그는 어제 서울에 갔다 왔다.
 b. 그는 서울에 갔다 왔다.

(20-a)에서 『어제』를 省略하여, (20-a.)와 (20-b.)의 表層構造가 같아진 다 하더라도, (20-b.)의 文이 (17)의 경우처럼 「不明確」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20-b)를 「不明確」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또한 文法的으로도 「不明確한 文」으로

22) 한국어의 S는 S → PP + VP로 전개시킬 수 있다. 主語를 NP 아닌 PP (Prepositional Phrase)로 표시하는 것은 主語가 助詞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그 理由는 簡單하고도 明白하다. 곧, “젊은 男性과 女性은……”의 경우에는 『同一重複成分除去』의 規則에 따라 두번째의 “젊은”이 省略된 것이므로, 聽者는 당연히 “ ” 앞에 “젊은”을 期待할 수 있다. 그러므로 (17)에는 두가지로 解釋되는 「不明確」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反面에 (20-b.)의 경우에는 “서울에”라는 副詞句(狀況語, ADV1)앞에 “어제”(ADV2)라는 成分을 꼭 期待하지는 않는다. 文法的으로 말하면, 任意成分인 “어제”를 除去하는 規則이란 필요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제”의 省略만으로는 「不明確」하다고 말할 수 없다.²³⁾

要約하면, 우리가 “반드시 存在하리라”고 期待하는 成分이 省略되어 있고 그 省略은 狀況을 “唯一하게 復元할 수 (uniquely recoverable)”²⁴⁾ 없는 경우에, 이를 「不明確」하다고 말한다. 이와 反對로, 꼭 期待할 수는 없는 成分이 省略된 경우에는, 실령 그 때문에 狀況이 不分明해지더라도, 우리는 그 狀況을, 「不完全」하다고는 말할지언정, 「不明確」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不明確」의 概念을 염두에 두고 主語와 狀況語(곧, 副詞句)²⁵⁾의 差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

(21) 오늘도 견고 있다.

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不明確한 문장」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22) 그 애가 견고 있다.

인 경우에는, 「不完全」할지언정 「不明確」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2)에 “오늘”이나 “지금”이 꼭 省略되어 있다고 생각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反하여 (21)의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견고 있는 것인지, B가 견고 있는 것인지, 혹은 사람이 아니라, 개나 오리——어떤 動物——이 견고 있는 것인지 조차 「不明確」하다. 따라서 (21)를

23) 그러나, 特殊한 文脈 때문에, 「어제」와 같은 成分이 꼭 期待되는 경우, 이를테면, “우리들 셋은 그저께나 어제 서울에 갔다 와야 했다. 그래서 나는 그저께 갔다 왔고, 아우는 어제 갔다 왔다. 조카는 갔다 왔다”에 있어서 마지막 文은 「不明確」하다고 할 수 있다. 그 理由는, 문맥상 “조카”도 그저께 아니면 어제 갔다 왔었을 것이지만, 時日 표시가 없어서 “어제”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저께”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 cf. “句節構造標識 P에 除去變形 T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 적용 결과 얻어지는 「派生的 構造標識 P'」와 T로부터 P가 唯一的으로 復元 可能한 (uniquely recoverable) 경우에 한한다.” Chomsky (1965), *op. cit.*, pp.144 ~ 145.

25) 主語와 狀況語(부사구)는 형태상으로 모두 PP(명사구+조사)이기 때문에, 서로 区分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군가가 걷고 있다.”라고 解釋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걷는 것으로 解釋한다면, 그것은 바로 宜當 있어야 할 主語가 省略된 것으로 想定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句節構造規則(Phrase Structure Rule)²⁶⁾에서는, 한국어의 S를 다음과 같이 展開시켜, 主語인 PP는 必須成分으로 導出(derivation)하고, 時間과 場所의 “狀況語”는 任意成分으로 하는 것이다.

(23) S → PP (ADV₁) (ADV₂) VP

따라서 이 句節構造 文法(Phrase Structure Grammar)²⁷⁾에는

- (24) a. 主語는, 생략되면 문장의 『不明確』을 야기시키므로 必須成分이고
b. 時間이나 場所의 “狀況語”는, 생략되더라도 『不明確』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任意成分이다.

라는 分析이 反映되어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主語는 省略되면, 문장의 意味에 「不明確」을 일으키지만, 狀況語는 S의 展開에 있어서 選擇되지 않더라도 그 文章의 意味는 「不明確」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暗黙裡에, 그러나 가장 明皙한 形式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統辭面에 있어서 “主語의 存在”를 認定하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主語가 있다」 「主語가 없다」라는 論爭보다는 어떻게 假定하는 것이 여러가지 言語事實을 合理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統辭論의 重要課題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Ⅲ. 「場所理論」과 主語化·主題化

3-0. 지금부터 말할 바를 미리 간추린다면, 우리가 知覺할 수 있는 外界事象은 “場所의 移動”이나 “靜止(=場所의 存在)”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言語로 표현하는 形式도 “場所의 移動”이나 “狀態의 變化”중에서 하나를 擇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移動”은 이동하는 個體(=行爲者, 主語)를 돋보이게 하지만, “狀態의 變化”는, 거기에 關與하는 個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全體속에 융합시키는 表現形式을 쓰게 된다는 점등이다. 이것은 곧

26) 記號 A가, X-Y라는 환경에서, 記號 B로 교체 쓸 수 있는 규칙, A → B / X-Y의 集合(set)을 말한다. cf. Chomsky (1965), *op. cit.*, p. 66.

27) 구절구조 문법의 句節構造規則에는, 교체쓰기 規則(rewriting rule) 分枝圖 形成規則(tree-derivation rule), 交點 許容可能性 條件(node admissibility condition) 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Chomsky의 rewriting rule를 뜻함.

主語를 돋보이게 하느냐, 아니하느냐와 直接的이고 密接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3-1 (場所理論) 모든 現象을 「場所의 移動」 또는 「場所의 存在(=靜止)」로 보는 것은 19世紀의 場所理論(Localist Hypothesis)²⁸⁾에서 緣由한다. 當時의 “場所論者(Lokalisten)”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Wüllner는 그의 기본적인 見解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思考, 모든 言語行爲는 知覺에 유래하고, 知覺에 의존한다. 그런데, 知覺은 空間과 時間에 關連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에 대한 知覺과, 그들과의 可能的 諸關係가, 事實상 모든 知覺行爲에 있어서 그 形式으로서 機能한다.”²⁹⁾

또한, Wüllner에 의하면, 우리가 空間에서 知覺할 수 있는 對象은 靜止(Ruhe)의 상태에 있거나, 運動(Bewegung)의 상태에 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는데,³⁰⁾이 “運動”과 “靜止”는 각각 『變化』와 『狀態』를 뜻하고 있다. 곧, <場所的인 移動>과 <靜止>는, 각각 “變化”와 “狀態”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實現되고 있는 셈이다.

外界에 있어서의 變化와 狀態는 가지각색의 樣相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言語形式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豫期하기 쉽다. 그러나 實際로 쓰이는 언어의 表現形式은 극히 制限된 數호이며, 그 形式도 극히 制限된 要素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 까닭은 i) 言語表現의 대상이 되는 外界事象이란, 變化이나 狀態이나 둘 중 하나이며, ii) “具象的”인 變化나 狀態는 “抽象的”인 變化나 狀態의 表現에도 轉用될 수 있으므로, iii) 變化와 狀態의 두 項은, 言語表現의 分類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必要하고도 充分한 構成因子가 되기 때문이다.

28) 場所理論이란, 원래 19世紀의 Wüllner, Hartung을 비롯한 독일어권의 언어학자들에게 共通的으로 나타났던 주장으로서, 그들은 이 理論을 우선 「格」의 意味規定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금세기에 와서는 코펜하겐 學派인 Louis Hjelmslev 영국의 James M. Anderson 등이 이 「場所理論」에 적극적인 關心을 나타내고, 言語記述의 理想的 model로 삼고 있다.

29) F. Wüllner, *Die Bedeutung der sprachlichen Casus un modi* (Münster, 1827), p. 8.

한편, Hartung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知覺은, 일부에서는 感覺을 통하여, 일부에서는 精神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先行하는 것은 感覺的인 지각이며, 따라서 언어도 “精神的인 지각”보다는 “感覺的인 지각”을 이용한다. 感覺的인 것과 精神的인 것 사이에는 類推關係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거하여 言語는 「精神的인 감각」을 표현하도록 轉用된다. cf. J.A. Hartung, *Ueber die Casus, ihre Bildung und Bedeutung in der Griechischen und lateinischen Sprache* (Erlangen, 1831), p. 4.

30) Wüllner (1827), *op. cit.*, pp. 7 ~ 8.

英語의 경우, 다음의 例文은 이러한 共通的인 構造型의 存在를 시사하고 있다.

- (25) a. (存在) Three people are in the room.
 b. (狀態) Three people are in the wrong.

- (26) a. (所有) Willy has watch.
 b. (狀態) Willy has a cold.

- (27) a. (場所의變化) The ball went to Willy.
 b. (所有의變化) First prize went to Willy.

- (28) a. (場所의變化) Willy came to the station.
 b. (狀態의變化) Willy came to life.

- (29) a. (所有의變化) Willy got money.
 b. (狀態의變化) Willy got fame.

(25)~(29)의 例文은, 深層에 존재하리라고 推定되는 構造型이, 表層에 그대로 再現된 경우이다. 이에 反하여, 다음 例文은, 表層的으로는 비드시 同一하다고 말할 수 없는 “表現의 짝”이지만, 深層的으로는 共通的인 構造型에서 출발한 것으로 想定할 수 있다.

- (30) a. Willy went to the station.
 b. Willy went crazy. (*i.e.* Willy went to ‘craziness’)

- (31) a. Willy was in the room.
 b. Willy was wrong. (*i.e.* Willy was in ‘the state of being wrong.’)

- (32) a. Willy got fame.
 l. Willy got famous. (*i.e.* Willy got ‘the state’ of being famous. *or* Willy got to ‘the state of being famous’.)

- (33) a. She sent Willy to the hospital.
 b. She sent Willy crazy. (*i.e.* She sent Willy to ‘the state of being crazy’.)

이를테면, (32 - b.)는 “Willy는 有名한 狀態를 얻었다.” 혹은 “Willy는 有名한 狀態에 到着했다.”와 같은 構造型에 의거하는 것으로서, 兩者는 각각 (27)의 “Willy는 1等賞

을 얻었다.” 혹은 “Willy는 정거장에 到着했다”가 의거하고 있는 構造型과 基本的으로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場所論者(Localisten)」들도 시사하였지만, “場所的인 存在 또는 移動”은 抽象的인 “場所” level 까지 延長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1次的으로는 “狀態” 또는 “狀態의 變化”만을 나타내는 動詞들도,

(34) Willy became crazy. (i.e. Willy came to 'craziness'.)

(35) Willy became a doctor. (i.e. Willy came to 'the state of being a doctor'.)

(36) Willy was a doctor. (i.e. Willy was in 'the state of being a doctor'.)

(37) It made Willy crazy. (i.e. It caused Willy to go to 'craziness'.)

(38) It make Willy cry. (i.e. It caused Willy to go to 'the state of crying'.)

처럼 分析할 수 있다. 요컨대, become 이나 make 는, go, send 와는 달리, 원래 “場所의 變化”에는 관계하지 않는 動詞이지만, 그래도 역시 “抽象的 場所”를 向한 移動을 나타내기 때문에, 똑같이 “場所의 變化”를 표현하는 構造型에 의거하는 것으로 分析할 수 있는 것이다.

3-2. (場所理論과 主語化·主題化) 이렇게 外界事象을 모두 “場所的 移動”으로 볼 때, 그 事象들을 言語로 表現하는 데는, 두가지 方式이 있다. 하나는 “移動하는 個體” 곧 動作主에 注目하고, 動作主를 특별히 돌보이게 하는 形式을 쓰는 傾向이고, 나머지 하나의 方式은, 對象을 全體로서 포착하고, 설령 「動作主」가 있다 하더라도, 그 動作主를 가급적 돌보이지 않도록 全體의 情景 속에 융합시키는 方式이 그 것이다. 英語는 前者의 傾向이 현저한 言語이고, 韓國語에서는 後者の 傾向이 두드러진다.

앞 節에서 “돌보이게 하는 形式”이란 말을 썼지만, 외제현상을 言語로 表現할 때, 어떤 項에 돌보임 (Prominence)을 주는 文法的 手段으로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主題化』가 그러한 手段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主題」란, 文을 主題 (Theme)와 論述 (Rheme)의 두 가지 要素로 分析하는 경우에 쓰이는 (프로그學派의 Mathesius,³¹⁾ 런던學

31) cf. Vilém Mathesius, *A Functional Analysis of Present Day English on a General Linguistic Basis* (The Hague: Mouton, 1975)

를테면, 어떤 貨物이 요사이 到着하기로 되어있는 狀況에서, 自己 不在中에 실제 到着했는지 물어보는 경우, 한국어라면, “到着했나?”라고 묻는 것이 극히 自然스럽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貨物은 到着했나?”라고 主題部分을 添加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에는, 文脈上 어지간한 뒷받침 없이는 “Arrived?”라고 묻지 못한다. 보통이면 반드시 主語를 밝혀서, “Has the cargo arrived?”라고 물을 것이며, 기껏해야 “貨物”을 代名詞化하여 “Has it arrived?”라고 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英語의 「主語」는 “義務的”이기 때문에 “Arrived?”는 명백한 “省略”으로 話者나 聽者 雙方이 意識하게 된다. 이와 對照的으로, 한국어의 「主題」는 “隨意的”이기 때문에 “到着했나?”라는 표현으로 充分하며, 거기에 “省略”의 意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主題가 省略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添加”할 수도 있었지만 그 “添加”를 擇하지 않았을 뿐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영어의 主語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文頭(곧 主題의 位置)를 차지하며, “義務的”이기 때문에 英語의 主語는 매우 돋보이는 文의 要素이다. 한편, 動作主를 돋보이지 않게 하는 韓國語에 있어서는, 消極的인 面에서는, 「主題化」, 「主語化」, 「義務化」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積極的인 面에서는, 動作主와 같은 項까지도 「場所化」——比喩的 또는 抽象的인 뜻에서——되는 傾向이 있음을 뜻한다.

이 「場所化」란, 이를테면 “어제는 비가 왔다”에 있어서, “어제”라는 主題³³⁾는, 그 다음 이어지는 敘述에 대하여 일종의 “舞臺”를 設定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다만 그 舞臺가 文字 그대로의 「場所」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時間」이라는 抽象化된 場所를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는}을 거느리는 主題는, 實은, 文全體를 수식하는 “場所의 副詞句”와 비슷한 項임을 깨달으면, 그 표현이 隨意的(optional)임을 쉽게 首肯할 수 있다. 비유하여 말한다면, “In Seoul, the commodity prices are high.” (cf. 서울은 物價가 비싸다.)의 “In Seoul”의 部分에 해당하는 어귀이다. 이 部分은 省略되더라도 文의 基本構造에는 影響이 없다.

3-3. (『人間』 志向性과 『事物·現象』 志向性) 商店의 休業을 알리는 데에, 보통 다음과 같은 揭示가 쓰인다.

(39) a. We are closed on Sundays.

b. 일요일 휴업.

33) “어제는 비가 왔다”와 이에 對應하는 英文 “Yesterday it rained.”에 있어서, 主題는 똑같이 “어제 (Yesterday)”이고, 解說은 “it rained”이지만, 英文 主語는 ‘Yesterday’가 아니라 ‘it’이다.

문을 닫는 것은 “商店”이지 “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英文(57-a.)는 非論理的이라 할 수 있다. (外國人들은 한국어를 非論理的이라고 비평할 때가 있지만,³⁴⁾ 非論理的인 表現은 어느 言語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論理的으로는 “Our store is closed…”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商店이라는 『事物』을 中心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그 事物과 “近接(contiguity)”의 關係에 있는 『人間』的인 項—— 곧, 所有者로서 그 事物에 關係하는 『人間』——을 前面으로 내미는 表現을 자주, 그리고 自然스럽게 쓰고 있다. 한편, 이에 對應하는 한국어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事物』 내지 『現象』을 나타내는 項을 前面에 내미는 表現이고, 所有者인 『人間』은 그 모습이 가려지고 만다.

“옷에 뭘가 묻어 있어”라고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 쓰이는 英文은 보통 다음과 같다.

- (40) a. You have stains on your coat.
b. Your coat has stains on it.
c. There are stains on your coat.

이 가운데, (40-a.)는, 앞에 든 例文 “We are closed on Sundays.”와 마찬가지로, 『coat』와 近接의 關係—— 곧 所有者라는 關係——에 있는 『人間』的인 項을 돌보이게 하는 所有의 表現樣式이다. 「所有」라는 概念은, 원래 人間的인 項을 構成要素의 한쪽으로 삼아야만 可能한 것인데, 영어에서는 HAVE를 쓰는 『所有表現』이 너무나 확고하게 定立되어 있기 때문에, 人間的인 項이 關與하지 않는, 단순한 「存在」關係만을 나타내는 表現形式에 있어서 조차 擴大·適用된다.³⁵⁾ 이렇게 存在를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도 (40-b.)와 같은 「所有表現」이, 本來의 「存在」表現形式인 (40-c.)와 나란히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에 맞서는 韓國語의 表現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41) 저고리에 얼룩이 묻어 있어.

이 (41)에서는 「人間的인 項」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사실, 人間的인 項은 여기에 내놓을 必要도 없다. 만약, 꼭 내놓아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表現을 생각할 수는 있다.

- (42) a. 자네 저고리에 얼룩이 묻어 있군.
b. ?자네는 저고리에 얼룩이 있군.

34) 非論理的이라고 비판받는 한국어 表現의 例:

- i) 나는 냉면이다 (=내가 주문한 것은 냉면이다. 또는 I want to have 'naengmyun'.
ii) 나는 암탉이다 (=내가 택한 것은 암탉이다. 또는 I've decided to buy a hen.)

35) 이따므로, 類型論에서는, 한국어는 ‘BE 言語’, 영어는 ‘HAVE 言語’라고 한다.

cf. 철수에게는/철수는 아이들이 둘 있다 = John has two children.

이 방에는/이 방은 창문이 둘 있다 = This room has two windows.

英文 (40 - a) “ You have stains on your coat.” 는 명확한 所有形式을 취하여, “ you ” 는 “ 얼룩 ” 을 그의 支配下에 두는 「所有者」로서 提示되고 있는데, (42 - b.) 는 비록 『人間』의인 項이 主題化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存在의 表現」으로서, “ 자네 ” 는 『場所』의인 틀을 표시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이러한 對照的인 關係를, 거꾸로 한국어에서 出發하여 영어 표현에 到達하는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머리가 아프다.

(43) 은 한국어로서는 다시없이 自然스러운 表現이다. 그러나, (42) 의 例를 따라, 『人間』의인 項을 꼭 나타내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44) a. ?? 나의 머리가 아프다.
b. 나는 머리가 아프다.

(44 - a.) 는 自然스러운 한국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은 어색하지만 “ 容認 (accept- ed) ” 되었던 (42 - a.) 의 경우와 矛盾되는 것 같지만, 이른바 “ 分離不可能한 所有 (in- alienable possession) ” 와 “ 分離可能한 所有 (alienable possession) ” 의 差異 때문에, 생기는 言語現象으로 풀이된다. 곧, “ 저고리 ” 는 所有의 對象이 되지만, 자기 몸과는 別個의 存在物이다. 이에 反하여, “ 머리 ” 는 自己 몸에서 따로 分離시켜 所有할 수는 없다. 이렇게 所有者와 “ 所有의 對象 ” 을 分離할 수 없으므로, 구태여 『所有者』를 별도로 明示할 需要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어에서는, “ 아프다. ” “ 슬프다 ” 와 같은 個人의 生理的, 心理的 經驗을 나타내는 표현은 第1人稱 (곧 話者) 에 관해서만 쓰일 수 있다는 制約을 상기할 때, (44 - a.) 의 不自然스러움은 納得이 갈 것이다.

다음, 英語에 있어서 “ 머리가 아프다 ” 에 對應하는 가장 自然스러운 表現은 “ I have a headache. ” 이다. 이 文에서는 “ 頭痛 ” 이라는 生理的인 現象까지도 < 個體 > 化되어 “ 所有 ” 의 對象으로 포착되고 있다. 설령 < 人間的인 項 > 의 表출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My headaches 정도가 고작이다. 결국, 英語에서는, 한국어의 “ 머리가 아프다 ” 와는 달리, < 人間的인 項 > 을 明示하지 않고서는 그 表現이 不可能하다.

3-4. (『~하다型』 言語와 『~되다型』 言語)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英語는 언어표현에 있어서 “ 個體 ” 를 —— 곧, 動作主人 人間을 —— 中心으로 하는 傾向이 濃厚한데 反하여, 한국어에서는 對象을 “ 個體 ” 라기 보다는 < 連續體 > 로 포착하게 되므로, 그 언어표현도 動作

36) 英語史에 있어서, 「非人稱構文」이 「人稱構文」으로 發達한 것 (e.g. if it please you → if you please) 도 이러한 < 人間中心 > 의 傾向을 보이는 例라 할 것이다.

主를 〈全體狀況〉속에 融合해버리는 傾向이 强하다. 이것은 비단 “영어 : 한국어”만의 對立相이 아니라, 人間言語에 널리 볼 수 있는 傾向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Whorf는 “인도·유럽語에서는 「行爲者—行爲」가 中心的인 構造이지만, 아메리카 인디언의 Hopi 族 言語에서는 現實을 「일어난 일 (event)」 또는 「일어나는 일 (eventing)」이라는 觀點에서 분석한다.”³⁷⁾고 지적하고 있으며, Hartmann도 “인도·유럽語의 思考方式에 있어서는, 人間的인 “Ich”가 「主語로서」 行爲를 일으킨다고 보지만, 아일랜드語 (Irish)에서는, 人間的인 “Ich”는 뒷면으로 처진 채 “Ich”로는 어쩔 수 없는 過程 (Kraftvorgang)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³⁸⁾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場所의 變化」와 「狀態의 變化」는 여러 言語 사이에 볼 수 있는 對立的인 特徵이라 할 수 있다.

英語와 韓國語 사이에도 이러한 對立相은 어느 言語에 못지않게 두드러지다. 그런데 한 가지 特色은, 英語에서는 go와 come과 같은 “運動 動詞”가 『場所의 變化』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狀態의 變化』를 나타내는 데도 자주 轉用된다는 점이다.

- (45) a. John came to life.
 b. John's dreams came true.
 c. The strings came untied.
 d. John went red with anger.
 e. The vase went to pieces.
 f. John went crazy.

위 英文은, 한국어의 “가다”, “오다”를 사용하여 直譯할 수는 없고, 오직 『~되다』— 狀態의 變化를 나타내는 動詞 —— 를 사용해야만 표현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45—e. f.)에 對應하는 표현으로

- (46) a. *꽃병은 산산조각으로 갔다
 b. 꽃병은 산산조각이 되었다
 c. * John은 미치광이로 갔다
 d. John은 미치광이가 되었다

(46—a), (46—c)처럼 한국어에선 말할 수 없으며, (46—b, d)처럼 “산산조각이 되었다”, “미치광이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야만 한다. 이것은 비단 come, go와 같은 기

37) B.L. Whorf, *Language, Thought, Reality* (MIT Press, 1956), p. 241 & p. 147.

38) H. Hartmann, *Das Passive: Eine Studie zur Geistesgeschichte der Kelten, Italiker und Arier* (Heidelberg, 1954), p. 33.

본적인 “運動 動詞”에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The well *ran dry*.” “John *fell ill*.”도 이 類型에 屬한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come, go와 같은 <場所의 變化>의 動詞를 <狀態의 變化>의 動詞로 轉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앞의 (46-b, d)에서 보는 것처럼, <場所의 變化 → 狀態의 變化>의 轉用이 不可能하다.

영어에서는 심지어 “運動”을 나타내는 動詞 —— 곧, <場所의 變化>의 동사 - 가 <狀態의 變化>뿐만 아니라, 恒久的인 <狀態>를 보일 때도 있다. Hockett는 英語와 中國語를 比較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例文과 說明을 제시하고 있다.

- (47) a. The land *falls* about ten feet behind the house.
b. The road *runs* around the lake.

(47-a)는 그 家屋 뒷쪽 地形이 벼랑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고, (47-b)는 湖水 둘레에 道路가 있는 경우인데, Hockett는 이 例文에 대해서, “영어에 있어서는, 한 場所로부터 다른 場所로 移動함을 나타내는 動詞도 恒久的인 (地形과) 空間的 位置를 표시하는 데도 쓰이지만, 中國語에서는 이러한 表現은 쓰일 수 없는 것 같다”³⁹⁾라고 附言하고 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地形의 狀態나 道路의 有無를 나타내는 데도 “地面이 집 뒤에서 떨어진다”나 “道路가 호수 둘레를 달리다”나 함으로써, <動作主가 ~하다>의 構造型을 貫徹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對照的으로, 한국어는 狀況全體에 注目하여, 自然本位的으로 <스스로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라고 表現하려는 傾向이 강하다. 그러므로 英語를 『~하다型』 言語라 한다면, 한국어는 『~되다型』 言語라 할 수 있다. 最近, 偶然히, 버스 안에서 다음 글에 接했었다. 여기 引用하는 이유는, “名士의 글”이나 “名文”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글 全體가 오직 『~되다型』 表現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48) “杜甫가 曲江詩에서 읊은 「人生七十古來稀」도 지금와서는 헛말이 되고 말았으니 古稀란 말도, 나이의 인프레를 맞아 평가절하를 할 판이어서 열살이나 스무살쯤 더 불려야 되게 되었다. 게다가 아기의 나이를 0살에서부터 짧게 되었고,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열 달도 한때 빠져서 그 동안의 발육이나 감화도 중시하게 되었으니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옛날 속담을 「胎兒적 버릇이 백살까지 간다」로 바꿔서 생각하게끔 된 것이다.⁴⁰⁾

39) C.F.Hockett, “Chinese vs. English: an Exploration of the Whorfian Thesis” In: H. Hoijer, ed.: *Language in Culture* (Chicago, 1954), p.117.

40) 윤석중, “어릴적 버릇” 「三星 소식」 1983년 4월호, p.8.

이것을 보더라도, 한국어는 (『~하다型』 표현도 많겠지만) 역시 『~되다型』 言語임을 切感하게 된다.

이제 『~하다型』 言語인 영어와, 『~되다型』 言語인 한국어의 具體的인 對立相을, 「主語・主題」 問題를 中心으로, 간추려본다.

3-4-A. (人稱構文과 非人稱構文) 여기에서 말하는 “人稱構文”이란, 行爲者라는 「人間」의인 項을 主語로 하는 構文을 뜻하고, “非人稱構文”이란, 無主語構文을 뜻한다.

『~하다型』 言語에 속하는 西歐語에서는, 自然現象이나 自己自身の 心理 속에 일어나는 現象까지도 다음과 같이 <行爲者-行爲>의 구조형으로 표현한다.

- (49) a. 라틴어 : pluit. (=It rains.)
 b. 영 어 : It rains.
 c. 독일어 : Es regnet. (=It rains.)
 d. 프랑스어 : Il pleut. (=It rains.)

- (50) 독일어 : a. Es hungert mich. (=I am hungry.)
 b. Es ist mir kalt. (=I feel cold.)

(49)의 경우, 그 現象을 일으키는 것이 自然이기 때문에, 人間인 「行爲者」는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文法上的 「主語」도 이치상 있을 수 없다. 사실, (49-a)에서 보는 것 처럼, 라틴어의 例文에는 主語가 없다. 이처럼, 文法上的 主語를 갖지 않는 것이 “非人稱構文”이지만, 그러나 西歐 近代人的 意識으로는, 主語 없는 文은 어쩐지 不安定하게 느껴지는 탓인지, 영어에서는 ‘it’, 독일어에서는 ‘es’, 프랑스어에서는 ‘il’ 라는 三人稱單數代名詞를 形式主語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되다型』 言語인 한국어에서는 非人稱構文 (곧, 無主語構文)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 (51) a. 여름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b. 이제는 따뜻해졌습니다 그러.
 c. 기쁘다, 슬프다, 시장하다, 춥다

自然現象을 말하는 (51-a, b)도 非人稱構文 곧 無主語構文이지만, 話者의 心理 속에 일어나는 (51-c)와 같은 現象도 無主語構文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나는 기쁘다”라고 말했다면, 그 “나는”은 文의 主語가 아니라, 談話 (discourse)의 「主題」 또

는 “對照”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言及한 바 있지만, 한국어가 人稱主語를 가급적 표현하지 않는 것은, 그 人稱主語가 ‘既知情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국인 話者의 心理 속에는 「行爲者」를 表面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意識이 作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4-B. (無生物 主語와 副詞的 表現) 『~하다型』인 英語는 (52)~(54)의 例文과 같이, 抽象的인 概念에도 <“動作主”性> (agency)를 부여 할 수 있는데 反하여, 『~되다型』인 한국어에서는 그것을 피하여 副詞的으로 곧 “狀況”的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52) a. *Failure* drove John to despair.

b. 失敗하여 John은 절망했다.

(53) a. *What* has brought you here?

b. 어째서 여기 왔느냐

(54) a. *Pain* stung her into consciousness.

b. 찌르는 듯한 痛症 때문에 意識이 되살아났다.

抽象概念을 「主語」로 하는 위의 英文은, 直譯하면, 自然스러운 한국어가 되지 못하다는 점은 注目할만 하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抽象概念뿐만 아니라, 그 밖의 無生物이나 動物도 <動作主化(곧, 主語化)>하면, 不自然스러운 表現이 될 때가 많다.

(55) a. The *verandah* overlooked a small garden.

b. 그 ‘베란다’로부터는 작은 庭園이 내려다 보였다.

(56) a. The *cat* made him a rich man.

b. 그 고양이 때문에 그는 富者가 되었다.

이러한 「無生物主語」는 영어의 한 特徵이라 할 수 있는데, 英語가 그렇게까지 「無生物主語」를 좋아 하는 까닭도, 실은, 無生物까지 『人間』化하여 <“動作主”性>을 부여함으로써, <actor-action-goal>라는 基本構造型을 貫徹시키려는 영어의 生理 때문이다. (53-a)의 의 경우 *What*는 “데리고 오는 動作主(agent),” *you*는 “데려와지는 受動者(patient)”의 관계로 포착되고 있지만, (53-b)의 한국어에선, 動作主도 없고 受動者도 없다. 그리고 영어의 他動詞 “bring”에 대하여, 한국어에서는 “오다”라는 自動詞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3-4-C. (人間中心 表現과 狀況中心 表現) 『~하다型』인 英語는 으레 “行爲者”中心, 곧, “人間” 내지 “個體” 中心으로 표현하게 되고, 『~되다型』인 한국어는 “狀況” 내지 “事物” 中心의 表現을 좋아하는 傾向이 있다. “한국어에는 主語가 없다” “아니다. 主語省略 現象이 많은 것이다” 등의 論議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韓英語의 比較』라는 觀點에서 볼 때, 한국어가 非人稱構文을 좋아하고, 無生物主語를 避하고, 狀況 내지 事物中心으로 表現하려는 傾向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57) a. *I can see a ship in the distance.*

b. 멀리 배가 보인다.

(58) a. *What do you hear?*

b. 무엇이 들립니까

話者 自身の, 또는 바로 앞에 있는 聽者의 感覺·感情을 말할 때도, 英語에서는 「行爲者」를 表面에 앞세워서 “I can see ...” 이니 “What do you hear?” 라고 말하지만, 한국어에서는 「行爲者」인 “나”, “너”는 뒤로 물러서게 하고 「事物」을 중심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59) a. *You've got the whole weight of the house lying on that ceiling.* — Doris Lessing, *The Other Women*.

(59)와 같은 英文을 翻譯할 때, 학생들은 韓英語의 表現構造 差異를 무시하고, “당신은...” 이라고 人間主語로부터 번역하기 시작하므로, 자연스러운 韓國語 表現이 나오지 않는다. 한국어의 所有構文은 2項關係(x가 y를 지니다)로 표현되지, (59)의 英文처럼 you·weight·ceiling의 3項이 關與하는 3項關係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英文을 한국어다운 표현으로 하려면, 「人間」中心의 表現을 버리고—— 곧 you라는 人間主語를 후퇴시키고—— “무게”와 “천장”의 2項關係로 표현하여야 한다.

3-5. (영어의 主語와 主題와의 關係) 한국어는, 이미 屢次 언급한 바와 같이, 그 表現對象을 <行爲者-行爲>로 포착하지 않고, <狀況의 推移>로 포착하려는 傾向이 강하기 때문에, 主語는 表面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한국어에선, 談話(discourse)의 수준에서 「主題」를 제시하고, 그것에 관하여 解說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主語와 主題가 一致하는 경우란 도리어 드물다. 그리고 「主題」를 표시하는 {—는}은 提示力이 강하여, 省略표(,)나 마침표(.)를 넘어서 다음 文章에도 影響을 미친다. 이렇게 한국어의 「主題」는 일단 提示되면, 다른 主題가 등장할 때까지 그 談話의 “場”에서 惰性を

지속한다. 또한 「主題」도, 서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라면, 表現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英語에 있어서는, 한국어와는 反對로, 主語와 主題가 一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兩者가 別個의 概念이라는 것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알아 볼 수 있다.

3-5-A. < “定” (definiteness)의 名詞句 > “定”의 名詞句란, 話者가 말하는 名詞句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文脈 또는 狀況으로 聽者에게 알려져 있음을 뜻한다. 「主題」는 무엇보다도 “定”의 名詞句라야 하지만, 主語에게 그런 制約이 없다. “固有名詞”와 “總稱名詞”는 “定”의 名詞句이기 때문에 「主題」가 될 수 있다.⁴¹⁾

- (60)a. Speaking of John Smith, *he* is a student of mine.
b. Speaking of cats, *they* are sneaky, malicious animals.

이를테면, (60-a)는 聽者가 John Smith를 알고 있든지, 혹은 그 人物이 이미 會話에 登場한 경우에 쓰인다.

3-5-B. < 動詞와의 相關性 > 主語는 그 文의 動詞와 選擇關係를 가지지만, 主題는 動詞와는 相關없이, 오직 談話 (discourse)의 制約內에서 自由로이 選擇될 수 있다.

3-5-C. < 機能的 役割 > 한국어의 主題를 표시하는 助詞 { -는 }은 省略, 마침표등의 句讀點을 넘어서 다음 文章에도 그 영향을 미치지만, 英語의 主題에는 그러한 影響力은 없고, 오직 主動詞의 適用範圍를 限定할 뿐이다.⁴²⁾ 다음 文(61)에 있어서 *he*와 *him*은 각각 *Ted*와 *Harry*를 가리킨다고 해석되는데, 이것은, 主題로서의 役割은 전연 關與하지 않고, 앞에 있

41) Gundel는, 不定名詞도 主題化될 수 있다고, 다음의 例文을 들고 있다.

i) A dog I don't have.

ii) A Norwegian I don't think you could persuade her to marry.

cf. J.K. Gundel, "Role of Topic and Comment in Linguistic Theory".

Reproduced by the Indiana Univ. Linguistics Club, 1977.

42) 이 점에 관하여 Chaf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What the topics appear to do is to limit the applicability of the main predication to a certain restricted domain. Typically, it would seem, the topic sets a spatial, temporal, or individual framework within which the main predication holds."

W.L. Chafe,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p. 50.

는 英文의 “主語의 位置”가 그러한 方向性 내지 觀點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⁴³⁾

(61) *Ted saw Harry yesterday. He told him about the meeting.*

마찬가지로, (62 - a, b)에 있어서는, “him”은 모두 앞 節의 主語를 가리키고 있다. 곧, (62 - a)의 him은 “Floy”를, (62 - b)의 him은 “Roscoe”를 가리키고 있다.⁴⁴⁾

(62) a. *Floy hit Roscoe, so I don't like him.*

b. *Roscoe was hit by Floy, so I don't like him.*

IV. 結 論

정확히 말한다면, 「主語」든지 「主題」든지 그 概念을 명쾌하게 결정하는 規準이나 定義는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다.⁴⁵⁾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主語」를 “문장 S의 直接支配를 받는 NP”로 定義하고 논술을 진행하였다. “문장 S의 直接支配를 받는 NP”는 <VP의 支配를 받는 NP>와는 다른 概念으로, 이를테면 “나는 건기가 싫다”의 경우, “나”는 S의 직접지배를 받는 NP이지만 (따라서 主語⁴⁶⁾이지만), “건기”는 <VP의 支配를 받는 NP> (이를테면 補語 따위)로 看做함을 뜻한다.

이렇게 한국어에 「主語」를 인정 내지 假定하는 까닭은, 우리가 “記述的 妥當性”에 도달하려면, 言語事實에 대한 表面的 觀察에 그치지 않고, 그 「記述」속에 그 言語 또는 言語一般이 갖는 중요한 規則性 및 一般的 特徵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어에 「主題型言語」의 特性이 농후하다는 것은, 한국어의 語順이, 다른 言

43) W.L. Chafe, *op. cit.*, p. 47.

44) 이 해석은 M. Noonan (1977)에 의함.

cf. M. Noonan, “On Subjects and Topics,” *Proceedings of the 3rd Annual Meeting, Berkeley Linguistic Society* (Calif.: Berkeley Linguistic Society, 1977), p. 380.

45) *cf.* 이정민·배영남 (1982), *op. cit.*, p. 799.

46) {—는}이 文頭に 나타났다고 해서 죄다 Topic Sentence로 볼 수 없다. {—는}은 主題標識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格에 通用된다. 이러한 까닭에 “特殊助詞”이니 “通格”이니 불리는 것이다. *cf.* 유목상, *op. cit.*, p. 105

語와는 달리, 매우 自由스럽다는 점에서 곧 알 수 있다. 어떤 名詞句도, 述語動詞의 制約을 받지 않고, 文頭에 서서 主題가 될 수 있다.

- (63) a. 이 寫眞은 순이가 찍었어요.
 b. 이 寫眞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c. 그러한 것은 나는 모른다.
 d. 그 점은 이미 충분히 의논되었어.

위 例文의 밑줄 부분은, 主語라고는 할 수 없고, 오직 主題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어는 이러한 構文이, 이른바 “二重主格의 構文”과 더불어, 크게 돋보이는 言語이다. 또한, 語順이 自由롭기 때문에, 主語型言語와는 달리, 被動構文이 널리 쓰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한국어의 被動構文의 擔當區域은 매우 局限되어있는 印象을 받는다. 이렇게 그 擔當區域이 좁은 것은, 그 나머지 구역을 主題中心의 構文이 吸收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득한 옛날 自然 속에 방치된 初期의 人間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위대한 自然을 두려워하고 그 偉力에 順應하면서 살아나갈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人間들은 자기의 힘을 自覺하게 되면서부터 自主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어떤 部族들은 끊임없이 “場所를 移動하면서” 狩獵生活을 ——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 “自然에 挑戰하면서” 陸海의 貿易에 종사하게 되었고; 어떤 部族들은 “한 場所에 定住하고” 여전히 “自然에 順應하면서” 農耕生活에 종사하게 된 것으로 상상된다. 이러한 두 가지 生活樣式은 “文化”의 差異를 가져왔고 특히 西歐와 韓國의 “文化”의 對立相은 —— 이를테면, “個”의 論理 vs. “集團”의 論理, 二元論理·論理的인 사고방식 vs. 全體觀的·情緒的 사고방식, 積極的 vs. 행동양식, 自己主張 vs. 自己滅却의 文化, 人間關係의 非連帶意識 vs. 連帶意識, 有情體와 無情體의 非連續 vs. 連續, 往服해야 하는 自然 vs. 順應해야만 하는 自然 등의 —— 형태로 具現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文化”를 반영하는 47) 言語表現에 있어서도, 영어는 <場所를 移動하는 個體>, 특히 <動作主로서의 人間>에 주목하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하다型 언어』 『人間本位的 언어』 『言語型 언어』로 발달되었고, 한편 한국어는 <狀況全體>를 포착하고, <狀態의 推移>라는 觀點에서 표현하려는 『~되다型 언어』 『自然本位的 언어』 『主題型 언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3. 4. 20)

47) cf. J.B. Carrol (ed.) (1956), *op. cit.*, p. 212.

Subjects and Topics in Korean and English

by Soo-un Kang

There are a number of linguists who deny the existence of *subjects* in Korean sentences. They assert that what seems to be a *subject* is only a part of the *predicate* and not a grammatical category symmetrical to the predicate. The writer of this paper, however, proposes that the grammatical category of subjects should be recognized for a rational “description” of the *regularity* and *generalization* of Korean sentence structures; and points out some linguistic data which would not be convincingly explained without the concept of subjects.

In this sense, Korean should, typologically, be classified as “*subject-prominent and topic-prominent language*,” as Charles N. Li (1976) elucidated. Korean, however, has stronger characteristics of a “*topic-prominent language*” than those of a “*subject-prominent*.” This is because the word order of a Korean sentence is so free as to bring any NP to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and make it the topic. In English, on the contrary, the word order is firmly established and there are many constraints to change the word order and to topicalize any other NP than the subject word.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thought has made English tend to grasp any external phenomenon as “a *movement* from one place to another”, whereas Korean sees it as “a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In English it is only natural to say, “John came to life” and “John went crazy”, but Korean cannot use these words of movement, “come” and “go” in the above sense. Corresponding expressions of Korean will be “John became conscious.” and “John became crazy.”

In English, the speaker gives particular prominence to the actor or subject of the sentence which is usually an “agentive” human; but in Korean, the actor is apt to be dissolved into the background situation. Thus, “*I can see a ship in the distance.*” and “*What is audible?*” in Korean. If personal pronouns are put at the beginning of a Korean sentence, it is probably meant to be a *topic* rather than a *subject* of the sentence, meaning “speaking of myself” or “as for you”. For the same reason of denying prominence to the subject, an *expression of possession* is avoided in Korean and “*To me there are the sons,*”, “*In the room there are two windows.*” are preferred to “*I have three sons.*”, “*The room has two windows.*”

To sum up, English, because it pays attention to *individuals* that act or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may be considered as “the actor- or agent-centered language”, “the Actor-ACTS type language”, “HAVE type language”, “human-centered language”, and “subject-prominent language”; whereas Korean, which pays more attention to the transition of the total phenomenon, may be considered as “the situation-oriented language”, “nature-centered language”, “BECOME type language”, “BE type language”, “non-human-centered language,” and “*topic-prominent language*”, although the features of *subject-prominent* language are also gradually turning up in Korea.